

## 시편 1-3편의 본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불가타 번역의 특징

박철우\*

### 1. 서론

불가타가 성경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며, 주석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구약학계의 현실이다.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를 번역한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기존의 고대 라틴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거친 중역(重譯)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당시 헬라-라틴 문화권에서 라틴어나 헬라어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문학이 그들의 문학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릇된 인식과 라틴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sup>1)</sup>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히브리 성경을 직접 번역하기를 원했고, 히브리 문학적 장점을 부각시키기를 원했으며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히브리 성경이 갖고 있는 내용과 특징들을 라틴어 성경 안에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히에로니무스의 번역에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잘 나타나 있고, 그의 문학적 탁월성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sup>2)</sup>

필자는 여기에서 시편 1-3편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번역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 번역의 원칙과 특징을 검토하고, 히에로니무스의 성경 번역의 테크닉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말 성경 번역과, 더 나아가 주석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편 본문의 내용과 수사학적 특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를 수행하되 특

---

\* 나사렛대학교 교수, 구약학.

1) Adam Kamesar, *Jerome, Greek Scholarship, and the Hebrew Bible: a study of the Quaestiones hebraicae in Genesim* (Huddersfield: Charlesworth Group, 1993), 46-49.

2) Manuel Antonio Quirós Rodríguez, *Latín hablado y latín clásico* (San José: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4), 211-232.

히 히브리어 본문(MT)<sup>3)</sup>과 70인역 그리고 PG<sup>4)</sup>와 PH<sup>5)</sup>에 대한 비교 관찰을 바탕으로 전개한다. 여기에서의 분석은 주로 번역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 2. 불가타 성경 비평본 약사

히에로니무스는 382년, 교황 다마스스 1세의 지시로,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여러 시기를 통하여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라틴어 번역 성경(Vetus Latina) 중 네 복음서들을 헬라어 성경을 바탕으로 개정하였다. 그는 384년까지 이 네 복음서의 개정과 함께 고대 라틴어 성경의 시편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히에로니무스가 70인역을 따라 수정한 첫 번째 개정판 시편은 Versio Romana 또는 Psalterium Romanum이라고 불린다.<sup>6)</sup>

384년 교황 다마스스 서거 후, 385년 그는 로마를 떠나야 했고, 베들레헴에 정착하였다. 그곳에서 Hexapla의 다섯 번째 단(column)인 70인역 교정본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새롭게 개정하였다(386-392년).<sup>7)</sup> 390-405년에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 성경 39권을 새로 번역하였다. 이 때 번역된 시편은 소수의 불가타 사본에 남아 있는데, 그는 이 새 번역을 iuxta Hebraeos라고 불렀다.<sup>8)</sup> 그러나 이 시편은 전통적인 클레멘트 불가타에 포함되지 않았다.

Versio Romana는 다른 역본들 곧 PG(Psalterium Gallicanum)나 PH (Psalterium Hebraicum)에 의해 대체되었다. 앵글로-색슨 영국에서는 1066년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 때까지 이 시편이 사용되었다. 불가타의 몇몇 초기 사본들은 PH를 내포하고 있지만, 후기의 대부분의 사본들은 PG를 취하고 있다.

3) 히에로니무스 시대의 히브리어 본문과 MT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함; Adam Kamesar, *Jerome, Greek Scholarship, and the Hebrew Bible*, 180; cf. Colette Estin, “Les traductions du Psautier”, L. Fontaine / C. Pietri, eds., *Le monde latin antique et la Bible(Bible de tous les temps 2)* (Paris, 1985), 74.

4) PG는 Psalterium Gallicanum (Psalmi iuxta Septuaginta emendati)의 약자임.

5) PH는 Psalterium iuxta Hebraeos (Psalmi iuxta Hebraicum translati)의 약자임.

6) 그러나 이 개정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J. N. D. Kelly,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8, 89; Colette Estin, “Les traductions du Psautier”, J. Fontaine / C. Pietri, Paris, eds., *Le monde latin antique et la Bible (Bible de tous les temps 2)*, 1985, 77-78.

7) J. N. D. Kelly,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158-159; B. M. Metzger, “Versions, ancient”, 749-760; D. C. Parker, “Vulgat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860-862; *Biblia Sacra Vulgata*, v-xxxii.

8)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PH(Psalterium Hebraicum)라고 표기함.

초기 불가타를 보여주는 사본들이 오늘날까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불가타 이본들이 나오게 되었고, 6세기 중반 Cassiodorus (ca. 485-ca. 580)는 불가타를 그 본래의 것으로 회복하려 시도하였다. 요크의 알퀸(Alcuin)은 불가타 수정본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였고, 801년에 그 수정본을 샤를르마뉴 대제(742-814)에게 선사하였다. 유사한 시도가 Orléans의 주교인 Theodulphus(787?-821), 캔터베리 대주교인 Lanfranc(1070-1089), Cîteaux의 대수도원장 Stephen Harding(1109-1134) 등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 이래로 필경사의 실수나 오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여러 교정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중 1528년에 나온 Robertus Stephanus의 비평본은 최초의 비평본으로서, 1592년부터 1979년 Nova Vulgata가 나올 때까지, 로마 카톨릭의 공인 성경이 된 클레멘트 불가타(Sixto-Clementine editions, Sixtus 5세[1590]와 Clement 8세[1592]의 지시로 출판된 불가타)의 모체가 되었다.

1907년 비오 10세는 로마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학술원 수도사들에게 클레멘트 판의 수정본을 위하여 히에로니무스 불가타의 새로운 비평본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이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카톨릭 공인 성경으로 선포된 Nova Vulgata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 이외에 성경 연구를 위해 중요한 라틴어판 성경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 성서공회에 의해서 출판된 Biblia Sacra Vulgata(chief editor, Robert Weber)이다. 이 책은 1969년(2007년 제 5판)에 처음 출판된 것으로 불가타의 초기 본문의 재생을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이 책의 본문비평장치는 불가타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시편에서, 왼쪽에는 전통적인 Psalterium Gallicanum을 담고, 오른 편에는 Psalterium Hebraicum을 담고 있다.

### 3. 수사학적 본문 분석

#### 3.1. 시편 1편

1절의 라틴 문장 구조는 히브리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히에로니무스 번역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sup>9)</sup> 이것은 히브리 본문의 문학적 특징, 특히 가능한 한 어순까지도 그대로 살리려는 그의 시도를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70인역에도

9) Beatus vir qui (אֲשֶׁר אֵשׁ אֱשֶׁר־יִשְׁרָאֵל) non abiit (לֹא הִלֵּךְ) in consilio impiorum(בְּעֵצָת רְשָׁעִים).

반영되어 있는 번역법이며, 히에로니무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히브리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문학적 장점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헬라어, 라틴어, 로망스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는 하나, 우리 말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구조적 수사학적 특징을 살리려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sup>10)</sup>

히에로니무스는 ‘레짚’(רִצְּוֹנִים, scoffers)을 derisorum<sup>11)</sup>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70인역의 λοιμῶν(pestilent, evil men)의 번역인 pestilentiae(PG)와는 달리, 히브리어의 의미(루쯔, רָצַח ‘경멸하다, 조롱하다, 비웃다’)를 잘 살리고 있는 번역이다. 우리 말 성경에는 이것을 대개 ‘오만한 자’로 번역하고 있다(『개역』, 『개역개정』, 『표준』). 『공동』에서는 이것을 ‘조소하는 자’로 번역하여 원문을 잘 살리고 있다. 이것의 영어 번역은 scoffers(ASV, NASB, RSV, NRSV) 또는 the scornful(KJV, NKJV) 또는 mockers(NIV) 등으로 번역한다<sup>12)</sup>.

히브리 본문 구조를 그대로 살리려는 히에로니무스의 시도는 2절에서도 계속되며 그의 모든 번역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적 면모이다. 2절의 경우, 영어에서도 그 구조적 특징(특히 히브리시의 병행구적 특징)이 반영되고 한글 성경에서도 나타난다(『개역』; 『개역개정』; 『표준』).<sup>13)</sup>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헤페쯔’(חֶפֶץ 기쁨, 즐거움)를 번역하기 위하여 명사 voluntas를 사용한다. 이 헤페쯔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חָפַץ에서 나온 말이지만, ‘소원’ 또는 ‘계획’의 의미가 강하다(욥 31:16; 왕상 13:10; 사 53:10; 44:28). 이 말의 번역어인 voluntas은 70인역(θέλημα<sup>14)</sup>)의 영향을 받은 번역이며, PG와도 일치하는 것으로(voluntas), volo(원하다, 바라다, 좋아하다)의 파생어이다. 이 말(voluntas)은 단순한 기쁨의 상태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 곧 적극적인 의지적 행위라는 능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의지적 소망’을 나타내는 ‘헤페쯔’를 위한 대역어로 voluntas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율법을

10) 박철우, “표준 새번역 이사야 1:1-9 초역과 최종안의 재고: 내용 동등성 원칙과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우리말 표현과의 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2002), 54-73.

11) derideo(웃어대다, 비웃다, 코웃음치다)의 명사형(derisor).

12) *Nueva Biblia Española* (los cínicos); *La Bible* (TOB, des moqueurs); “der Spötter” (Hans-Joachim Kraus, *Psalmen 1-59*, BK [Neukirchner Verlag, 1978], 131).

13)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개역』)

Sed (כִּי אֵם) in lege Domini (בְּתוֹרַת יְהוָה) voluntas eius (חֶפֶץ) //

et in lege eius (בְּתוֹרַתוֹ) meditabitur die ac nocte (יָמָם וּלְיָלָה) (יהוה)

14) “will, what is willed, what one wishes,” etc. Bauer/Arndt/Gingrich, ed., *Th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vol. I, ICC (Edinburgh: T. & T. Clark, 1906), 8.

사모하며’ 또는 ‘율법을 소망하며’ ‘율법을 간절히 바라며’ 라는 의미로 번역하여 이 말이 갖고 있는 간절함과 적극적 바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가’(הגה)를 meditabitur로 번역하였는데 이것도 ‘하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반영하는 어휘이다.<sup>15)</sup> 히브리어 하가(הגה)는 ‘오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신음하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며 ‘집중하고 열중한다’는 뉘앙스를 가진 말이다.<sup>16)</sup> 특히 ‘공부나 훈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이다. meditor는 이태동사(deponent)이며, continued intent, focused thinking을 가리키는 것으로,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히브리의 내용과도 잘 부합된다. 라틴어에서 meditatio도 본래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sup>17)</sup> 물론 수도원에서의 lectio divina에서 행해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과도 잘 부합된다.

히에로니무스의 이러한 어휘 선택은 원천언어(source language)와 목표언어(target language), 특히 목표 언어 사용자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3절 서두의 et erit tamquam (그리고 마치 ~와 같다)은 히브리 본문의 어순(אֲשֶׁר יִהְיֶה)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PH는 3절에서 히브리어 ‘샤툴’(שָׂטוּל)을 수동분사 transplantatum으로 번역한다. 70인역과 PG에는 이것을 하나의 절(clause)로 풀어서 번역한다. “quod plantatum est” [secus decursus aquarum]. 그러나 PH에서는 분사 구조 (“transplantatum” [iuxta rivulos aquarum])로 단순화하였다.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샤툴’을 직역하여 문장을 단순화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였고 동시에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plantatum 대신에 transplantatum으로 대치하였다. 내용 전달의 확실성을 위한 이와 같은 번역은 매우 바람직하다. 히에로니무스는 함축적 번역으로 시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동시에 본문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 직역을 넘어서는 어휘를 채용하였다.<sup>18)</sup>

70인역은 히브리 본문 אֲשֶׁר יִהְיֶה יְצִיָּהּ כֹּל을 복수로 번역한다(πάντα ὅσα [all those which]). 그리고 PG도 이를 복수로 번역한다(et omnia quaecumque).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이것을 히브리 본문대로 단수형으로 번역한다(et omne

15) A. Negoită / H. Ringgren, “הגה hāgā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I, 321-324;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vol. I (Leiden: Brill, 2001), 237.

16) A. Negoită / H. Ringgren, “הגה hāgāh”, 323 (H. Ringgren).

17) P. G. W. Glare, *Oxford Latin Dictionary* (Oxford: Clarendon Press, 1994), 1090.

18) Manuel Antonio Quirós Rodríguez, *Latín hablado y latín clásico*, 215.

quod). 그리고 PG의 faciet(פָּעֵץ) 대신 가정법 fecerit을 사용하여 라틴어의 문법(여기에서는 시제 사용법)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최대한 시적인 뉘앙스를 주며 표현상의 품위를 높히려 시도한다. 그는 본문을 직역함과 아울러, 동시에 본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처럼 새 번역에 합당한 다양한 창의성과 신선감도 보여 준다.

4절에서 70인역에는 있으나 MT에는 없는 non sic 와 “a facie terrae”를 PG에서는 [÷]로 표기해 놓았으나, 그의 번역 PH에서는 당연히 이를 제외시켜 번역하였다. 그 이외에는 PG와 일치된 번역을 하고 있다.

5절에서 PG의 ideo(therefore, on that account) 대신에, 여러 개의 자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접속사(propterea)를 사용함으로써 앞 절(4절)과의 연결관계의 선명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이 절에서, 70인역과 PG가 1절의 ‘아짜트’(עֲצָתָא)와 5절의 ‘아다트’(תְּהִלָּתָא)를 모두 βουλή(70인역; [PG, ‘consilium’])로 동일하게 번역한 것과는 달리, 히에로니무스(PH)는 1절의 ‘아짜트’(עֲצָתָא)는 consilio로, 5절에서의 히브리 본문(‘아다트’, תְּהִלָּתָא)은 congregatione라는 또 다른 대역어로 번역함으로써, 히브리 본문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 준다. 1절의 ‘아짜트’(עֲצָתָא)는 본문 비평적 차원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표현이다<sup>19)</sup>.

PG와 PH에서, 70인역의 ἀναστήσουσιν(shall rise)가 resurgent로 번역되어 있다. 히에로니무스가 Old Latin Version(*Vetus Latina*)에서 차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 표현이 적합하다고 보아, PG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PH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직역을 선호하는 그에게 있어 이 표현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 본문에는 정판사가 명시되어 있다(MT, מְשֹׁפְטִים). 따라서 히브리 표현은 어떤 특정한 심판 곧 자연스럽게 종말론적 심판인 the Judgement가 암시 또는 표출될 수 있다. 라틴어에는 판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a judgement인지 the Judgement인지 불분명하다.<sup>20)</sup> 히에로니무스는 resurgent가 기독교적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아 이 특정한 심판 곧 최후의 심판을 표출하기 위해 이 표현(resurgent)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그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목표 언어 사용자

19) 시리아역에서는 עֲצָתָא가 뒤에 이어져 나오는 תְּהִלָּתָא와 바뀌어 나온다(BHS); 히브리어 ‘아짜트’는 ‘충고’나 ‘회의’로 번역될 수 있다. 다후드는 이 단어를 회의(council)로 번역한다. M. J. Dahood, *Psalms I: 1-50*, New York: Doubleday, 1966, 1-2; P. C. Craigie, 『시편 1-50』, 손석태역(서울: 솔로몬, 2000), 63-65.

20) 70인역도 심판을 정판사 없이 ἐν κρίσει(in judgement)로 번역하고 있다;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10.

들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요데아(יְדֵי)를 라틴어의 현재형으로 번역함으로써(*novit* 알고 있다) 히브리어 분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미완료적 의미 곧 하나님의 지속적 행위를 잘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이와 내용적 병행을 이루고 있는 같은 절의 ‘토베드’(טוֹבֵד [טוֹבֵד]의 칼 미완료 3인칭 단수)와 동일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70인역과 PG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는 번역이다.

### 3.2. 시편 2편

70인역은 1절의 히브리어 ‘라그슈’(רָגַשׁ [רָגַשׁ, be in tumult or commotion])를 ἐφρούαξαν(*raged*, φρούασσω의 aorist)로 번역한다. 그리고 PG는 *fremuerunt*로 번역한다. 이 어휘는 *to roar, murmur, grumble*(으르렁거리다, 웅성거리다, 술렁거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이것을 *turubabuntur*로 번역한다. 그는 *turbabuntur*(소요를 일으키다, 소란을 일으키다, 소란스럽다)가 רָגַשׁ가 가지고 있는 ‘소요’의 면모를 더 잘 표출한다는 차원에서 이 어휘를 선택한 것 같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70인역도 이 적대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sup>21)</sup>. ‘라그슈’의 의미는 아랍어의 *rajasa*(make a vehement noise)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에 대한 매우 공격적이고 강한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sup>22)</sup>. 그리고 1절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격앙되어 떼져 모이다’(throng tumultuously)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turubabuntur*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매우 적절한 어휘 선택이다.

70인역에서 이것은 부정과거(ἐφρούαξαν[*raged*])로 번역되어 있고, PG에서도 완료(*fremuerunt*)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이것을 미완료로 번역한다. 이것도 이 시편의 콘텍스트(소란을 피우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일 등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가 하나님께 대적한 일회적 사건이라기보다 지속적 행동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미완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존적으로 계속되어 온 이방 민족들의 거역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21) 이 경우, 70인역의 ἐφρούαξαν(*raged*)는 PG보다 이 적들의 적대적 모습을 더 선명하게 표현한다.

22) BDB, 921; cf. Koehler and 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1189.

보편적 특성을 염두에 두어, 일회적 사건이 부각되는 완료형 대신, 미완료형을 사용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히에로니무스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본문 자체의 콘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들도 어휘 선택의 과정에 반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3)</sup>

2절의 ‘이트야쯔부’(יְתַצְּבֻּ)는 70인역에서 παρέστησαν(stood up)으로 번역된다. PG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adstiterunt(stood up)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이 콘텍스트가 전제하는 ‘함께 소요하고 대적하며 모반한다’는 의미를 살려, ‘consurgent’(will rise up together)로 번역한다. 여기에서도 그의 번역에서 내용적 콘텍스트에 조화를 이루는 어휘, 즉 con(cum, 함께)을 접두어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선정하는 세심한 작업을 볼 수 있다.

70인역의 그 다음 절(clause)의 동사인 συνήχθησαν(gathered themselves) ὀν ζυγὸν αὐτῶν(yoke)으로 PG에서는 convenerunt로 번역된다. 이에 반해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tractabu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תְּרַבְּנִי (רַבַּ'의 Niph. 완료 3인칭 공성 복수)의 번역이다. רַבַּ'는 Qal형에서 ‘설립하다’, ‘기초를 세우다’, ‘기초를 놓다’ 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Niphal형의 경우 이것은 ‘의논하다’,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시 2:2; 31:13). 이것은 이례적 용례이다.<sup>24)</sup> 히에로니무스는 이점을 감안하여 tractabunt(take counsel)로 번역하였다.<sup>25)</sup>

그리고 PG는 70인역 συνήχθησαν(gathered themselves) 다음에 나오는 ἐπὶ τὸ αὐτὸ(together)를 in unum이라는 두 단어로 번역한데 반하여, PH에서는 히브리어, ‘야하드’(יָחַד)를 그대로 살려서 한 단어 어휘인 pariter로 번역한다 ([tractabunt] pariter, [take counsel] together). 여기에서도 히에로니무스는 가급적이면 히브리 문장 구조를 그대로 살리려 시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와 용례를 가지고 있는 adversus와 adversum 중 PH의 경우에는 adversum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이 adversum의 끝 음소(音素, phoneme)인 m이 Dominum의 끝 음소 m과 christum의 끝 음소 m과의 반복적 연결을 통하여 음성학적으로 병행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서 히브리 운문의 강한 병행구를 강조함으로써 내용적 차원에서 적들이 하나님과 메시아에게 대적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3절에서 ‘아보테모’(עֲבוֹתַיִם)를 ὀν ζυγὸν αὐτῶν(yoke)으로 번역하고 있고, PG가 이것을 iugum으로 번역한데 반하여 PH는 laqueos로 번역한다. PG는 70인

23) 참조, 시 1:6, 하나님 역사의 속성 하나님의 향존적 모습.

24) BDB, fix or seat themselves close together, sit in conclave.

25) 히브리 바브 접속법에 따라 시제는 앞 문장의 절(consurgent)에 맞추어 미완료(미래)로 번역하였다.



역을 직역한 것이며, PH는 히브리어 ‘아보트’(עֲבֹת [twisted cord, rope]) 곧 동사 ‘아바트’(עֲבַת weave, wind)를 어근으로 하는 명사인 ‘아보트’가 암시하는 대로 noose, snare, trap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laqueus(올가미, 고를 맨 매듭)로 번역한 것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역본들이 이 해석을 따른다. cords(ASV, NASB, KJV, NKJV, RSV, NRSV); 결박(『개역』, 『개역개정』), etc.<sup>26)</sup> 더욱이 Laqueos는 bands 또는 bonds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어휘의 병행구 ‘모스로트’(מוֹסְרוֹת)(אִסְרָה tie, bind)와도 의미상 ‘묶는 끈’을 연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단어이다.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매우 적합한 일치이다.

4절에서 다시, 본문의 시적 함축성을 살리려는 히에로니무스의 시도를 명백히 볼 수 있다. 그는 ‘요셉 바샤마임’(יֹסֵף בַּשָּׂמַיִם)을 PG처럼 qui habitat in caelis(참조, 70인역, κατοικῶν ἐν οὐρανοῖς)로 번역하는 대신, 이것을 축약하여 habitator caeli 로 번역한다. 여기에는 그는 히브리 전치사 (בְּ)의 내용 곧 in(안에)를 처소격 caeli에 내포시킴으로써 히브리어의 두 악센트를 유지한다. 4상반절에서, 70인역과 PG는 비웃다(ἐκγελάσεται, inridebit)라는 말 다음에 목적격 대명사가 나온다(αὐτούς[70인역]; eos[PG]). 그러나 PH는 히브리 본문에 목적어가 없음으로(קִנְיָן), 목적격 대명사(eos) 없이 이 단어만을 번역한다(ridebit). 가능한 한 히브리어의 표현에 충실하려는 그의 의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4하반절에서도 70인역이나 PG와는 달리, 히브리어 본문대로 접속사 et 없이 그대로 번역한다.

5절에서도 히브리 본문과의 문자 및 문장 구조 차원에서의 병행을 보여준다. 이것은 70인역과 PG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면모이다. 특히 conturbatur는 히브리어 ‘놀라게 하다’(בְּהַלְמוֹ, בְּהַל)의 Piel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 3인칭 남성 복수)를 잘 번역한 어휘이다. 여기에서 강세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con(cum)을 접두어로 가지고 있는 합성어 conturbare를 통하여 그 내용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히에로니무스는 ‘앞에, 거슬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 ob와 함께, ‘소란을 피워 (말 낭독 따위를) 방해하다’ 또는 ‘교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obturbo(ob + turbo)와, ‘드러나게’ ‘공공연하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접두어 ‘pro’를 담고 있는 proturbo도 그 선택의 범주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콘텍스트에서는 conturbo가 가장 적절하다.

6절의 경우에는 본문 자체가 약간 불투명하다. PH의 6절 말미에 있는 adnuntiabo Dei praeceptum은 MT의 7절a에 해당되는 אֶל־הָאֱלֹהִים אֲסַפְּרָה의 번역이다(I will preach God’s commandment). 히에로니무스는 אֶל־הָאֱלֹהִים אֲסַפְּרָה

26) cf. 『표준』(사슬); NIV(fetters); NBE(coyundas); La Bible(TOB, liens).

에 이어지는 문장인 אֱתָהּ כְּנִי אֱלֹהֵי אֱמֶר의 주어를 Dominus(יהוה)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앞의 יהוה를 바탕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이곳에 삽입한 것이거나,<sup>27)</sup> 아니면 사본상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יהוה קִם Dei praeceptum(‘the Lord’s commandment’가 아니라 ‘God’s commandment’)으로 번역한다. 70인역은 이것을 διαγγέλλων τὸ πρόσταγμα κυρίου κύριος(declaring the ordinance of the Lord)<sup>28)</sup>라고 번역하고 있고, PG는 praedicans praeceptum eius라고 번역한다.

이제 문제는 PH의 6상반절 곧 MT의 6절(וַאֲנִי נִסְכַּתִּי מֶלְכִי עַל-צִיּוֹן הַר-קְדְּשָׁי)의 번역이다. 이것의 직역은 “Yet I have set my king on Zion, my holy hill”이다. PG는 70인역을 따라, ego autem constitus sum rex ab eo super Sion montem sanctum eius(I have been made king by him on Sion his holy mountain)라고 번역하였고 본문의 의미가 자연스럽고 분명하다. 그러나 PH는 이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히에로니무스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ego autem orditus sum regem meum super Sion montem sanctum suum. 이것은 보편적 라틴어 문법을 벗어나는 번역이다. 히에로니무스 자신의 전형적 경향에 따라 그가 여기에서 히브리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려 했다는 가정과, 기타 몇 가지 본문상의 가정을 바탕으로<sup>29)</sup> 히에로니무스의 이 난해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 have appointed(or have begun to weave)<sup>30)</sup> my king on Zion, my holy mountain.

8절은 PG와 동일하게 번역된 것이다.

9절에서, PG는 히브리 본문의 ‘테로엠’ תְּרֵעַם[개뜨리다, 부수다]의 Qal 2 인칭 남성 단수 + 3인칭 남성 복수 대명접미사)을 reges(you rule)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70인역의 ποιμαίνεις(רֵעַם תְּרֵעַם pasture, tend, graze의 Qal 미완료 2인칭

27) 70인역은 동사 אֱמֶר의 주어로 κύριος를 첨가하고 있다.

28) Lancelot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7th Zondervan printing 1980[orig. 1851] (Grand Rapids: Zondervan, 1980).

29) sanctum suum의 suum을 Theodulphus correctories를 따라 meum으로 수정할 경우 my holy mountain이 되며, suum을 C, I, L을 따라 eius로 이해할 경우, his mountain[king's mountain]이 된다(참조, apparatus criticus, *Biblia Sacra Vulgata* vol. I, Stuttgart, 771). “my holy mountain”은 히에로니무스가 히브리어 본문(MT)를 따랐을 것을 전제로 한 번역이다. 대부분의 현대역이 이 번역을 따른다(TOB, “Moi, j’ai sacré mon roi sur Sion, ma montagne sainte”; NBE, “Yo mismo he unguido a mi rey en Sión, mi monte santo”; NASB, RSV, NRSV, NIV); Angel González, *El libro de los salmos* (Barcelona: Editorial Herder, 1984), 54 (“Yo soy quien ha instalado a este mi rey sobre Sión, mi monte santo”);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11 (“Now I, I have set My king, Upon Zion, My sacred mount”).

30) orditus는 ordior(deponent verb)의 분사이다(begin to weave [*The standard Lewis and Short Latin-English dictionary*]); 이 단어의 deponent participle 용례는 Prof. William Johnstone (Aberdeen University)에 의해 확인된 것임.

남성 단수) 곧 *tend them as a shepherd*의 의역이다. 이 경우, PH는 70인역에 더 가깝게 *pasces(pasture)*로 번역한다. MT 본문에서는 **עָבַר**(깨뜨리다, 부수다)를 어근으로 하는 말로 표기되어 있으나, 70인역의 이해도 가능하다.<sup>31)</sup>

10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베아타(**בְּעֵינֵי**)를 *nunc ergo*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그 앞 절에서 전개된 내용에 대한 결과적 연결 관계(*therefore*)를 강조한다. 70인역과 PG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단지 각각 *καὶ νῦν*, *et nunc*라고 표현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의 이 번역은 본문의 전체적 내용적 전개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어휘를 찾는 그의 번역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PG는 70인역(*οἱ κρίνουντες τὴν γῆν*; 히브리 본문 **יִשְׁפְּטוּ אֶת הָאָרֶץ**)을 절(*clause*)로 풀어 번역한데 반해(*qui iudicatis terram*), PH는 이것의 분사형 명사 **שֹׁפְטֵי**를 마찬가지로 명사(*iudices terrae [judges of the earth]*)로 번역함으로써 히브리 본문이 갖고 있는 시적 함축성과 리듬을 살리려 시도하였다.

11절에서도 히브리어 본문의 문자 및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히브리 시의 병행적 요소를 부각시킨다(이 경우 70인역이나 PG와 같다).

12절의 경우, 히브리어(나슈쿠 바르 **בָּרַךְ אֶת בְּנֵי**)는 ‘kiss the son’이 일반적 번역이다(ASV, KJV, NKJV, NIV).<sup>32)</sup> 히에로니무스는 이 ‘바르’를 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것을 ‘바르’의 또 다른 의미인 *pure, clean*으로 해석하고, ‘나샤크 **שָׂשׂ**’를 *kiss*로 번역하는 대신 경배하다로 의역하였고 이를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경배하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adorate pure*).<sup>33)</sup> 이것은 70인역(*δράξασθε παιδείας[accept correction]*)이나 PG(*adprendite disciplinam*)와는 다른 번역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μήποτε ὀργισθῆ κύριος*(lest at any time the Lord be angry<sup>34)</sup>)를 PG는 *nequando irascatur Dominus*라고 번역한다. PH는 **יִשְׁפָּן**(lest he be angry)를 *ne forte irascatur*로 번역한다. *forte*(혹시)를 사용하여 불변화사 **לֹא**(--하지 않도록)이 내포하고 있는 가정적 요소를 적절히 표출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 파악에 있어서 PG보다 훨씬 더 발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וְהִיאָבְרוּ**(“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개역』])을 히에로니무스는 70인역(*καὶ ἀπολείσθαι ἐξ ὁδοῦ δικαίας*)과 PG(*[pereatis] de via iusta*)와는 달리, PH에서 히브리 본문 그대로[*pereatis] de via*로 번역한다.

31) P. C. Craigie, 『시편 1-50』, 73.

32) NASB(“Do homage to the Son”); RSV (NRSV, “Kiss his feet”); NBE (“rindanle homenaje”); TOB (“rendez hommage au fils”); “Kiss sincerely” (Briggs, 12).

33) 히에로니무스는 Aquila와 Symmachus를 따르고 있다;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23.

34) Lancelot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699.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호세’(חֹסֶה, חָסָה [seek refuge 도피하다 피난하다]의 Qal 분사 남성 복수 연계형)를 PG의 ‘그를 믿는 자들’(qui confidunt in eo; 70인역 [οἱ πεποιθότες ἐπ’ αὐτῶ]) 대신에,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qui sperant in eum)로 번역하였다. 이 후자가 이 히브리어(חָסָה)의 보편적 의미인 ‘도피 또는 피난’의 의미와 더 잘 조화를 이룬다.

히브리 성경의 12하반절(בְּיַיְבֹעֶר כְּמַעַט אַפּוֹ אֲשֶׁרִי כָּל־חַוִּיטִי בו)에 놓여 있는 문장은 70인역에서도 12하반절에 위치하고 있다(영어성경과 『개역』도 12절 후반). 그러나 PH와 PG에서는 이 본문이 13절로 되어 있다. PG와 PH는 이 부분을 앞 문장과는 별도의 독립된 문장으로 취급한다(70인역도 이것을 12절 안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별도의 문장으로 다룬다).

이 12하반절([MT] בְּיַיְבֹעֶר כְּמַעַט אַפּוֹ אֲשֶׁרִי כָּל־חַוִּיטִי בו)을 PH에서는 cum exarserit post paululum furor eius, beati omnes qui sperant in eum으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역본에서는 בְּיַיְבֹעֶר כְּמַעַט אַפּוֹ (beati omnes qui sperant in eum)을 앞의 내용(בְּיַיְבֹעֶר כְּמַעַט אַפּוֹ [cum exarserit post paululum furor eius])과 구별된 독립문장으로 번역한다(ASV, NASB, RSV, NRSV, KJV, NKJV, NIV, NBE, TOB, 『개역』, 『개역개정』, 『표준』). 이 ‘아슈레’ 본문은 כִּי(when) + אֲשֶׁרִי(blessed) 구조이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시편 144편 12-15절(כִּי[12-14절, when] + אֲשֶׁרִי[15절, blessed])<sup>35)</sup>에 나온다. 아슈레 본문은 독립적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시 1:1, 32:1, 33:12; 84:5; 잠 3:13; 8:34; 28:14, etc.). 그러나 이 경우는 144:12-15의 구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때 문맥이 더 잘 통한다. 70인역과 PG와 PH는 이 본문을 이러한 구조로 이해한 것이다(“whenever his wrath shall be suddenly kindled, blessed are all they that trust in him”).<sup>36)</sup>

70인역은 히브리어 כְּמַעַט을 τάχῃ로 번역한다. 이것은 주로 quickly, without delay(속히, 미구에, 지체없이)를 의미한다. PG는 이것을 in brevi로 번역하고, PH는 post paululum으로 번역한다. 랜슬롯 브랜튼(Lancelot Brenton)은 이것을 suddenly로 이해하여 “whenever his wrath shall be <suddenly> kindled, blessed are all they that trust in Him” (“그의 진노하심이 <갑작스레> 이를 때에, 주께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번역한다.<sup>37)</sup> 주로 시간

35) 시 144:12를 when 문장으로 번역하면, when + happy is the people that is in such a case(cf. ASV), 곧 ‘~때, 바로 그 사람은 복되다’가 된다.

36) Lancelot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699

37) 브랜튼의 이해, 『개역』과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בְּיַיְבֹעֶר כְּמַעַט אַפּוֹ을 그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표준』은 『개역』과 대동소이하나 이 두 문장을 나누어 번역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적 차원에서 quickly를 의미하는 in brevi (in a short time)보다 다소 모호한 표현이긴 하나, 그 이외의 의미로도 쓰이는 post paululum(after a very little)이 이 콘텍스트에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본 것 같다.

만일 기존의 번역들처럼 MT 12하반절(בּוֹ אֲשֶׁרִי כְּל־חֹטִי [beati omnes qui sperant in eum])을 그 앞의 내용(MT 12절aβ, אַפּוֹ כְּיִיבְעֵר כְּמַעַט אַפּוֹ [cum exarserit post paululum furor eius])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12절(MT)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속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출 34:6; 시 86:15; 103:8; 145:8; 욥 2:13; 온 4:2)이라는 말씀과 모순된다. 히에로니무스는 이점을 고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70인역이나 PG에서 אַפּוֹ כְּמַעַט אַפּוֹ(MT 12절aβ)과 בּוֹ אֲשֶׁרִי כְּל־חֹטִי(MT 12하반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으로 나타난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이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38)</sup> 그리고 이 문장을,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실 때,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cf. Lancelot C. L. Brenton)라는 의미로 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는 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 3.3. 시편 3편

PG가 히브리어 1절의 מִזְמוֹר을 70인역의 ψαλμὸς를 따라 psalmus로 번역한 데 반해, PH는 canticum으로 번역하였다. 그 이외는 PH와 PG가 동일하다 ([canticum david] cum fugeret a facie abessalon filii sui; [A Song of David], when he fled from the face of his son Abessalom).

2절에서 PH는, PG(qui tribulant me)나 70인역(οἱ θλιβοντές με)의 문장 구조와는 달리, 히브리어 ‘짜라이’(צָרִי צָרָה의 남성 명사 복수 צָרִים + 대명 접미사)를 그대로 직역하였다(hostes mei). 그리고 PH는 ‘라빔 카뎀 알라이’(רַבִּים קָמִים עָלַי)를 multi consurgunt adversus me로 번역한다.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PG의 insurgunt와 달리 consurgunt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 콘텍스트가 암시하는 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집합적 의미를 강조하는 접두어 cum과의 합성어인 consurgunt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방향성이나 목적 등을 나타내는 접두어 in을 붙인 insurgere 보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개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것을 독립된 두 문장으로 나누는 대신, 이 두 문장을 연결하고 히브리어에 없는 “너희에게”를 삭제하여, 브렌튼처럼 번역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개념과 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8) 그는 13절에서 이것을 한 절로 취급하였다(참조, PG, 13절).

다는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cum이 첨가된 *consurgere*를 선택하여 이 콘텍스트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콘텍스트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는 그의 번역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3절에서 **לְבַלְלֵהֶם**(벨로힘, 하나님 안에)를 70인역과 PG에서는 3인칭 소유대명사를 붙이고 있으나(ἐν τῷ θεῷ αὐτοῦ, in Deo eius),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본문(**לְבַלְלֵהֶם**) 그대로 번역하였다(in Deo).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לוֹ**를 PG(*salus ipsi*)의 *ipsi* (to himself, for himself)대신에,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huic*(*dative, to him, or for him*)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4절에서, PG가 히브리어 **בְּעֵזְרִי מִנְּנִי**를 70인역 (ἀντιλήπτωρ μου, my helper)을 따라 *susceptor meos*로 번역하고 있으나, PH는 이것을 직역하였다 (*clipeus circa me [bronze shield around me]*). 본문에 충실하려는 그의 의도를 잘 보여 준다.

5절에서, 70인역과 PG는 ‘에크라’(הֶקְרָא)를 완료형으로 번역하나(70인역 ἐγὼ ἐκοιμήθην; PG: *clamavi*),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히브리 본문 그대로 미래 시제(히브리 미완료)로 번역한다(*clamabo*). KJV(NKJV, NASB)는 70인역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동사인 ‘야아네니’(יִעֲנֵנִי)의 경우도, PG는 완료(*exaudivit*)를 취하고 있으나 PH는 미래를 취한다(*exaudiet*). 이 **יִעֲנֵנִי**의 *consecutive* 대신에 *ordinary* **ו**로 읽었을 것이다(**וַיִּעֲנֵנִי**). 『개역』(“응답하시는데도”, 미완료)은 히에로니무스의 PH번역전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6절의 ‘헤키쪼티’(הִקְיִצֹתִי [קָם의 히필 완료 1인칭 단수])를 *evigilavi*(*evigilare, to wake up*)로 번역하였는데, ‘쿠쯔’(קָם)는 주로 ‘잠에서 깨어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이것이 이 콘텍스트의 의미이기도 하다(삼상 26:12; 사 26:19; 렘 31:26; 단 12:2; 욥 14:12, etc). 이것도 ‘일어나다, 솟아 오르다, 기운차리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강조되는 PG의 *exsurrexi* (cf. 70인역 ἀνάστα)보다 더 콘텍스트에 적합한 어휘선택이었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히브리어 미완료형 ‘이스므케니’(יִסְמְכֵנִי [סָמַךְ의 Qal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 1인칭 공성 단수])를 완료형으로 번역한다(*quia Dominus sustentavit me*).<sup>39)</sup> 이 문장(יְהוָה יִסְמְכֵנִי) 앞에 있는 문장이 완료형임으로(MT, 6절a), 이것에 맞추어 이것도 완료형 의미로 번역한 것 같다. 이것은 히에로니무스가 문자적 번역을 선호하였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 히브리어 본문의 미완료형을 살려서 현재형으로 번역하여도 좋았을 것이다.

39) PG는 이것을 미래형으로 직역하고 있다(*suscipiet*[미래형]; cf. 70인역, ὅτι κύριος ἀντιλήμψεταιί μου[미래형]).

KJV와 NKJV는 히에로니무스의 PH 번역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for the LORD sustained me”), 현대의 대부분의 역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현재로 번역한다(“For Jehovah sustaineth me”; cf. ASV, NASB, RSV, NRSV, NIV, 『개역』, 『개역개정』). 『표준』과 『공동』은 그 앞의 내용까지 현재 시제(히브리어 미완료형)로 번역한다<sup>40</sup>).

7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아세르 사비브 샤투 알라이’(אֲשֶׁר סָבִיב שָׁתוּ עָלַי)에서의 완료형 동사 שָׁתוּ의 문법적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quae circumdederunt me(PH)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PG에서 보여주는 분사형과는 다른 면모이다(circumdantis me). 이 경우 NIV는 다른 영어 성경과는 달리, 분사형(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을 취하며 PG에 가까운 번역 형태를 보여준다. 다른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절(clause)의 구조를 유지한다(KJV, NKJV, ASV, NASB, RSV, NRSV).

8절β(לְחִי לְאִיבֵי אֶת־כָּל־אֵיבֵי לְחִי)에서, 히에로니무스는 כִּי를 6절의 כִּי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 quia로 번역한다. PG에서는 quoniam([70인역, ὅτι], 6절에서는 quia)으로 번역하였다. 한 콘텍스트 안에 있는 동일한 어휘를 번역함에 있어 특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동일한 대역어로 번역하여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 것도 히에로니무스 번역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sup>41</sup>). 물론 이 어휘들이 서로 다른 의미나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각각의 문맥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sup>42</sup>).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레샤임’(רְשָׁעִים)을, 70인역(ἁμαρτωλῶν)이나 PG(peccatorum)와 달리,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impiorum으로 번역하고 있다(경건하지 않은, 불충실한, 흉악한, cf. 1:1). 정확한 번역이다.

9절에서 PG는 70인역(καὶ)을 따라 et를 첨가하고 있으나,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et없이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어순을 그대로 따라서 히브리어를 직역한다(Domini est salus // super populum tuum benedictio tua). 히에로니무스가 보여주는 번역원칙인 히브리 본문의 내용과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번역이다.

40)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표준』; 참조, 『공동』).

41) 그는 시편 서두에 나오는 מְזִמֵּר를 거의 예외 없이 canticum으로 번역한다(시 3:1; 4:1; 5:1; 6:1; 8:1; 20:1; 21:1; 47:1; 48:1; 49:1; 50:1; 51:1; 62:1; 63:1; 64:1, etc).

42) 그는 히브리어 בטח(to trust, rely on, be confident)를 번역함에 있어서, 각각의 문맥에 따라 fidere(시 4:6; 37:3, etc), sperare(시 13:6; 28:7; 31:7, 15; 32:10, 21, etc), 또는 confidere(시 9:11; 21:8; 22:5-6; 25:1; 26:1; 27:3, etc)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 4. 결론

이상 시편 1-3편의 본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히에로니무스의 번역 원칙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히에로니무스는 본문에 충실하였고, 이것이 그의 번역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는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의 수사학적 구조적 특징도 그의 번역에 재현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브리시의 문학적 우수성을 라틴어 성경에 반영하려 하였다. 그는 자신의 번역에,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음성학적 특징까지 반영하려 하였으며(시 1:5, 6; 2:2; 4:3), 어휘를 선택함에 있어서 콘텍스트에 대한 세심한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행하였고(시 1:3, 5; 2:1, 2; 3:2; 4:2), 시적 함축성을 반영하려 하였다(시 1:3; 2:4, 10). 그는 히브리어의 고유한 의미론적 뉘앙스를 살리려 시도하였으며(시 1:1, 2; 2:3, 10, 12; 4:4), 합성어와 같은 라틴어의 고유한 특징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시 2:2, 5; 3:2; 4:2).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좋은 번역일 경우 기존의 번역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로 새로운 표현의 도입을 통하여 새 번역으로서의 신선감을 주려 노력하였으며, 폭넓은 창의적 표현을 보여주는 특징도 갖고 있다. 그는 원문에 충실 하였으며, 단순한 기계적 직역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원천 언어인 라틴어 사용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번역을 하였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 번역에서 유념해야 할 커다란 원칙들이다.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번역 원칙들을 다시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 본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유익하다. 그리고 불가타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히브리 성경 주석에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 <주요어>(Keywords)

불가타, 번역, 시편, 제롬, 라틴어.

Vulgate, translation, Psalms, Jerome, Latin.



<참고문헌>(References)

- 가톨릭 대학교 고전 라틴어 연구소 편찬,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5.
- 박철우, “『표준 새번역』 이사야 1:1-9 초역과 최종안의 재고: 내용 동등성 원칙과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우리말 표현과의 균형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2002), 54-73.
- Anderson, A. A., *Psalms(1-72)*, NCBC, Eerdmans: Grand Rapids, 1972.
- Bauer, Walter, Arndt, William F. and Gingrich, F. Wilbu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Brenton, Lancelot C. L.,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7th Zondervan printing 1980 (orig. 1851), Zondervan: Grand Rapids, 1980.
- Briggs, C. A., *The Book of Psalms*, vol. I, ICC, T. & T. Clark, Edinburgh, 1906.
- Brown/Drive/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53.
- Craigie, P. C., 손석태 역, 『시편 1-50』, 서울: 솔로몬, 2000.
- Dahood, M. J., *Psalms I: 1-50*, New York: Doubleday, 1966.
- Estin, Colette, “Les traductions du Psautier”, L. Fontaine and C. Pietri, eds. *Le monde latin antique et la Bible(Bible de tous les temps 2)*, Paris: 1985, 67-88.
- García de Diego, Don Vincente, *Diccionario ilustrado: Latino-Español, Español-Latino*, Bibliograf: Barcelona, 1973.
- Glare, P. G. W., *Oxford Latin Dictionary*,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Kamesar, Adam, *Jerome, Greek Scholarship, and the Hebrew Bible: a study of the Quaestiones hebraicae in Genesim*, Charlesworth Group, Huddersfield, 1993.
- Kamesar, Adam, “The Virgin of Isaiah 7:14: the Philological Argument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JTS* (1990), 51-75.
- Kautzsch, E. revised by A. E.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80.
- Kelly, J. N. D.,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8.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vol. I, Leiden: Brill, 2001.
- Kraus, Hans-Joachim, *Psalmen 1-59*, BK, Neukirchner Verlag, 1978.
- Moreno García, Abdón and Boira Sales, José, “Concepción jeronimiana de los sentidos bíblicos en el comentario a Qohélet”, *Estudios Bíblicos* 55(1997), 239-262.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남원준 역,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 Natalizia, Rolando, *Nihil-Roma-Maius: Gramática latina y una síntesis gramática histórica del castellano*, Comunerros: Asunción, 1977.
- Negoitǎ, A. and Ringgren, H. “הגָּהֵּ hāgā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I, 321-324.
- Quirós Rodríguez, Manuel Antonio, *Latín hablado y latín clásico*,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San José, 2004.
- Quirós Rodríguez, *El Latín y las lenguas romances*, San José: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0.
- Simpson, D. P. *Cassell's New Latin-English English-Latin Dictionary*, London: Cassell, 1975.
- Biblia Sacra Vulga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5.
- Nova Vulgata Biblio Sacrorum*, Vaticana: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6.

<Abstract>

## **Particularities of the Translation of Vulgate Considered on the Basis of Rhetorical Analysis of Psalms 1-3**

Prof. Cheol-Woo Park  
(Korea Nazarene University)

It is true that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does not pay due attention to the study on the Vulgate despite its importance for the Bible translation and exegesis.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reassess the principles and particularities of Jerome's Latin Bible translation, Vulgate. Here I have dealt with the matters on the basis of the literary analysis of the first three psalms of the O. T. I tried to carry it out by the observation of the rhetor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his translation, particularly by the comparative observations of Hebrew Bible(MT), Septuagint, Psalterium Gallicanum(Psalmi iuxta Septuaginta emendati), and Psalterium iuxta Hebraeos(Psalmi iuxta Hebraicum translati). Here I have focused on the facts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Jerome was faithful to the Hebrew texts in his translation, at least in his translation of the Psalms. Actually it was the goal of his translation. He was serious about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contents of the texts, but at the same time he tried to reproduce the rhetorical and structural particularities of the Hebrew texts in his Latin translation of the Bible. He tried to represent the literary excellency of the Hebrew poetry in his translation. This was another important goal of his translation.

He tried to achieve it by reproducing in his Latin translation the phonetic particularities of the Hebrew poetry(Ps 1:5, 6; 2:2; 4:3), its poetic terseness (Ps 1:3; 2:4, 10), and the particular semantic connotations of the Hebrew language (Ps 1:1, 2; 2:3, 10, 12; 4:4). His word choice was based on the very careful analysis of the meanings of the words in their own literary and theological contexts(Ps 1:3, 5; 2:1, 2; 3:2; 4:2). He also introduced special Latin complex words(Ps 2:2, 5; 3:2; 4:2).

He sometimes accepted the expressions of the already existing translations. But mostly he tried to produce a new translation with the freshness of expression in his translation with his literary creativity. He tried to be faithful to the Hebrew texts, but he did not purport to translate them mechanically. He did it on the basis of the deep knowledge of both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that is, Hebrew and Latin. Especially he shows his very careful consideration about the users of the target language. These ar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Bible translation that we have to bear in mind in our translation of the Bible. But the study of Vulgate provides various insights for the actual translation. It should also be very useful for the exegesis on the Biblical texts.